

### 공동체 소식



### 한가위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10/02(월): 수호천사 기념일

10/04(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10/07(토):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

#### 추석합동위령미사 안내

- 일시 : 10/1(주일) 오전 11:00.

#### 본당 평일미사 및 신심미사 안내

- 평일 미사 : 10/3(화) - 저녁 7:30(성당),  
10/4(수) - 저녁 7:30(성당),  
10/5(목) - 오전 10:00(교육관).

#### 구역별 반모임

- 내용 : 반모임의 첫째 지향은 소속반원들의 화합과 친교입니다.  
- 장소 및 시간 : 반원들의 사정에 따라 반장님의 권한으로 결정합니다.

#### 지난 9/28(목)에 '캔사스 대교구의 본당 재무지도방문'이 있었습니다.

- 내용: 재무지도방문 준비와 실행에 애쓰신 현임, 전임 재무위원께 감사합니다.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26	510	175	34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차 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추석맞이 음식나눔, 행사 1조
차 주	문문주, 최은미, 윤지선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감영진 라파엘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강승석 도미니코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9/24	54명	262달러	20달러
(총 1세대)			

### 한가위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10월 1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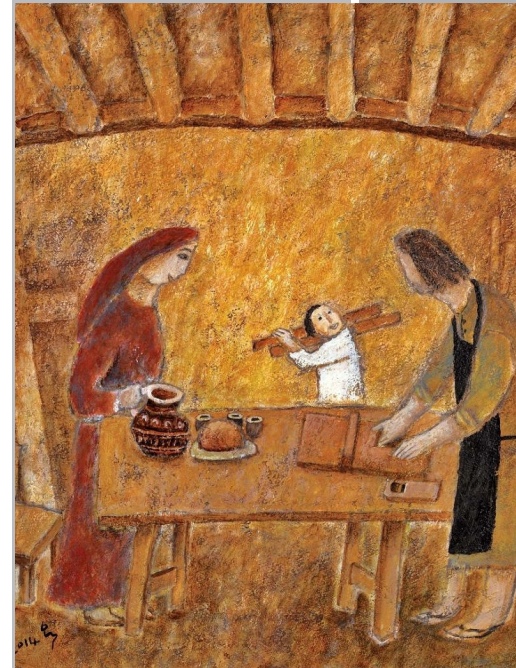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온 조상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 그림 묵상 성가정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루카 2,40)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주신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은 창조주 하느님의 품위에 참여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달아 큰 애정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버팀목이고 큰 보화인 신앙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자녀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반해야 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22-24,26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리라.>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4,13-16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리라.>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5-21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 쉐 마

##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느님 나라로



어느 신부님께서 돌아가시며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신부가 너무 큰 사람 되려 하면 안 돼.” 오늘날은 신부님의 유언이 기억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대축일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소화, 곧 ‘작은 꽃’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 일생을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해 살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성녀는 15살에 수녀원에 들어가 24살까지 10여 년가량 주방 일과 청소, 빨래와 바느질을 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낮은 일만 도맡아 하셨지만 성녀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병이 들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성녀께서 돌아가시기 전 원장 수녀님은 수녀님 자신의 이야기를 일기로 적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수녀님의 일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의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일상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하고 하찮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꺼이 살아내신 수녀님의 모범은 평범함보다 특별함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성녀께서는 성인이 되는 길이 특별함을 찾는 데 있지 않고, 평범함 속에 있음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축일을 맞아 봉독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더욱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며 더욱 힘 있는 자가 되려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어린이란 데레사 성녀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며 의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회개하여 어린이처

럼” 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걸어오던 길, 위를 향해서 높이 올라가려 하는 길에서 벗어나 내려가는 길, 자신을 낮추는 길, 하느님과 이웃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길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데레사 성녀처럼 어린이가 되어 자신의 일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린이, 작은 이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약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25,31-46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곧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 준 것이 당신에게 해 준 것이고, 그들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당신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복음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어린이와 같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하는 데레사 성녀는 오늘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했던 분이 분명합니다. 성녀께서는 평범한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봉쇄 수녀원 안에 계셨지만 세상의 작은 이들, 특히 죄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편지를 통해 영적으로 통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녀는 자신의 머물던 공간 전체를 하느님의 거룩한 장소, 기도의 장소, 성전, 곧 하느님의 나라로 바꾸셨습니다.

데레사 성녀 축일을 맞아 우리도 성녀의 모범을 본받아 일상을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녀처럼 세상 곳곳에 있는 작은 이들,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 교리산책

## 묵주기도(默珠祈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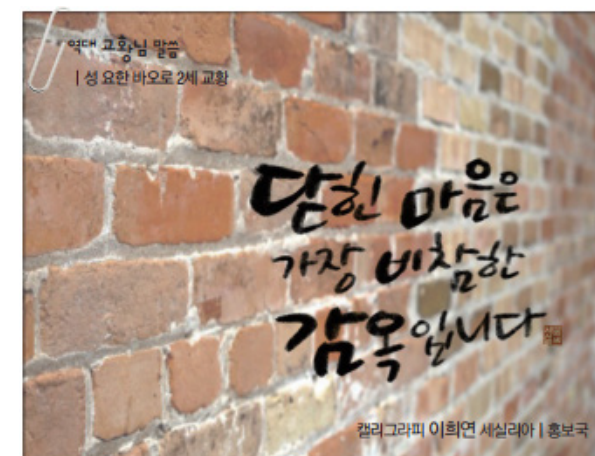
묵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복음 선포와 수난,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에 이르는 신비를 성모 마리아와 함께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의 다른 말 ‘로사리오’(Rosario, 장미화관, 장미 꽃다발)는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는데 신자들이 몰래 순교자들의 장미관을 모아 그 꽃송이마다 기도를 바치곤 했다는군요. 이 밖에도 로사리오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 중 어려움에 봉착한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자 성모님께서 묵주를 주시며 묵주기도를 널리 전하라고 하셨다는 전설과 도미니코 회원이 신앙의 진리를 연속하여 설교할 때 작은 주제가 끝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합송했던 설교 방식에 유래한다는 설, 그리고 12세기 문맹자들이 전례 중에 시편을 읽는 대신 주님의 기도 15회를 3부분으로 나누어 암송하던 것에서 발전되었다는 설이 대표적입니다.

어찌 됐든 역대 교황님들은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끊임없이 권장했고 오늘날 묵주기도는 수많은 사람이 즐겨 바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묵주기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한 내용이 담긴 훌륭한 기도입니다. 성모송을 바치는 가운데 사실상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이 우리 영혼의 눈앞을 지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은 우리 개인과 가정, 국가, 교회, 인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체험과

이웃의 체험, 특히 우리에게 소중하며 가장가까운 이들의 체험들을 묵주 기도의 연속적인 신비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묵주 기도는 단순하지만, 이처럼 인생의 리듬을 지니고 있습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 공경의 예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10번의 성모송을 한 다발의 장미로 생각하면서 바칩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월·토요일에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환희의 신비를, 목요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된 빛의 신비를, 화·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수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고통의 신비를, 수·일요일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과 관련된 영광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교회는 로사리오축일을 지내고 묵주기도 성월을 정하여 묵주기도에 의한 신심을 장려합니다.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 복음묵상

# 작은 꽃

홀로 있으면 누가 작다고 할까요?  
보는 이가 작다고 하지 않는데 누가 작다고 할까요?  
크기는 작아도 마음은 크고 향은 미약하지만 마음에 머무는 꽃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사람입니까?”(마태 18,1)